

보도시점 2026. 8. 28.(금) 12:00 배포 2026. 8. 28.(금) 10:00

미주투자공사, 포스코 아르헨티나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에 대규모 대출 지원

- 대통령 남미 순방 후속 성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뒷받침
-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지속적 협력 기반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성과 연결

미주개발은행그룹(IDB Group)의 민간부문 투자기관인 미주투자공사(IDB Invest)가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채굴·생산 사업에 7억달러(약1조원)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금리 대출 및 조세 혜택을 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난달 대통령 남미 순방 계기 경제개발 의제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이다. 특히,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사우스 진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통해 축적된 협력 기반도 이번 대규모 금융 지원 성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번 대출과 연계하여 한국 신탁기금 사업으로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8.27(목) 오후,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제임스 스크리븐(James Scriven) 미주투자공사(IDB Invest) 사장(CEO) 등 미주개발은행그룹(IDB Group)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면담에서 미주투자공사(IDB Invest)의 포스코 대출 제공이 우리 기업 지원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면서, 문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과정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DB Invest)와의 협력이 도움이 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남미의 풍부한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금융 역량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스크리븐 사장은 우리 정부의 미주투자공사(IDB Invest) 제3차 일반증자 참여*에 감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미주개발은행(IDB) 총회시 1.5억불 참여계획 표명('24.3월) 및 부총리 명의 납입의향서 기탁('25.12월)

우리 정부는 신탁기금사업 및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과 인재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김아연 (ayeoni@korea.kr)

